성명	서예진	수험기간	2021.07~2025.07.
학교	DGIST	전공	기초학부
키워드	삼시 특허고득점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62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서예진입니다. 동차·기득 때도 합격수기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 막막했던 삼시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경험이지만 공부하시는 분들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기를 보시는 분들 모두 조금만 더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80점	92.5점	72.5점

【시기별 공부】

~11월 3주	11월 4주~	12월 2주~	12월 4주~	1월~
민법	민법·물리	민법·물리·화학·특허	민법·물리·화학·특허·생물	전과목

동차 1차기간에는 창업활동을 병행하면서 시간을 쥐어짜내 틈틈이 공부를 했었는데, 삼시 1차는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4개월의 시간 동안 8과목을 어떻게 분배하여 공부할지 정했고, 휘발된 민법과 감을 빨리 끌어올려야하는 물리·화학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대학교에 재학하여 방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시간확보가 가능하다면 더 과감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삼시기간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법- <점수: 80점>

【교재】

민법공방(김동진 저), 민법공방연습(김동진 저), 모의고사(김동진 출제)

【시기별 공부】

~11월 셋째주 : 민법공방, 민공연

민법공방을 1회독 하면서 민공연을 풀었습니다. 민법공방을 오랜만에 보니 잘 읽히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한 챕터를 다 읽고 나면 민공연을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총칙 파트 회독이 끝나면 민공연의 민법총칙 파트의 문제풀이를 병행하며 물권법을 읽어 나갔습니다.

11월 넷째주~ : 민법공방/민공연 번갈아 회독

넷째주부터는 물리를 병행했습니다. 셋째주까지 민법공방 1회독을 거의 끝내고, 민공연만 풀면서 물리 문제를 풀었습니다. 민공연도 1회독이 끝난 뒤에는 다시 민법공방을 회독했고, 12월 5일에 민법공방 2회독을 마쳤습니다.

12월 둘째주~ : 민공연 회독

민공연만 회독하면서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민법공방을 참고하는 정도로만 봤습니다. 12월 23일에 민공연 2회독을 마쳤습니다.

1월 : 기출문제·모의고사 풀이, 민법공방·민공연 회독

김동진 강사님께서 업로드해주시는 민법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차례대로 하루에 1회차씩 풀었고, 민법공방을 약 50페이지씩 회독했습니다. 민공연의 경우에는 2회독 이후 한 번 이상 틀린 문제만 풀이하여 3회독을 마쳤습니다.

2월 : 최신판례, 민법공방·민공연 회독

민법공방은 시험 전 날 볼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마지막 회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신판례도 다시 볼 판례들만 표시했고, 민공연의 경우 두 번이상 틀린문제만 풀어 4회독을 마쳤습니다. 시험 전날은 민법공방, 최신판례에서 표시해둔 부분과 민공연에서 4번 틀린 문제+3회독때 틀린 문제만 다시 봤습니다.

【회독 방법】

민법공방의 경우 2회독 때는 채총-채각-물권-민총 순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읽기 싫은 파트부터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독막판에 쉬운 파트가 남게되어 부담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12월 이전까지는 학교가기 전 새벽에 목표 회독량의 1/2 정도를 회독하고 남은 부분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다니며 이동할 때, 밥먹을 때, 공강시간 등을 활용하여 회독을 마쳤습니다. 오히려 책상에 앉아서 회독하는 것보다 촉박한 시간 속에서 불편하게 회독하는 것이 순간집중력이 높여주어 더 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험 막판에는 지인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동안 1회독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꼼꼼히 보게 되어서 회독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함께 시간을 정해두고 회독하니 압박감에 빠른 시간내에 회독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공방연습의 경우 플렉슬 앱에서 마스킹펜 기능을 활용하여 정오확인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저만의 답안지를 만들어 두고 워크북을 활용하여 ox만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해설을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문제풀이는 워크북연습노트 기준 한페이지 정도 다 풀고나서 한 번에 확인했습니다. 민공연은 조금씩 차근차근 푸는것보다 한 번에 한파트씩 몰아 풀었을 때 가속도가 붙고 실력이 오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2.5점>

【교재】

조판기(박형준 저), 디자인보호법(김웅 저)

【특허법】

기본서를 따로 회독하지는 않았고, 스터디카페 사물함에 조판기를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발췌독하는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1차공부는 필요한 공부 방향성이 2차와 다르지만, 문제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1차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어

서 기본서 회독의 필요성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차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날짜 계산 등의 몇몇 파트들은 기본서를 발췌독하거나 문제풀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객관식을 풀 때는 선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으며 모르는 것이 없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는 민법보다 훨씬 과감하게 문제를 지워나갔습니다.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은 2회독을 하면서 바로바로 지웠고, 지우고 나니 전체 문제의 20퍼센트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만 문제를 지우면서도 해설에서 생소하거나 공부할 내용이 있으면 표시해두고 해당 부분 해설만 한 두번 정도 더 읽었습니다. 2차공부를 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학습했기 때문에 1차 시험에 필요한 어느부분에 구멍이 있는지 발견해내고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문과 관련하여, 1차시험에는 조문으로 장난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문스터디를 했습니다. 조문공부에 들어가는 시간이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양을 조절해서 적은 양이지만 꾸준히 공부하면서 익숙해지도록 노력습니다.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찾아 풀었고, 지엽적인 문제를 연습하고 경각심을 가지기에 좋았습니다. 시간여유가 된다면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허법 문제가 어려운 편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표법】

상표법은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기본서도 따로 보지 않았고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기출문제가 어느정도 익숙해져서 거의 틀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조문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조문은 하루에 30분 내외로만 짧게 공부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는 연도별 문제 3회차 정도씩을 풀었습니다. 반복해서 풀다보면 문제가 외워져서 30문제를 풀어도 1-2문제만 틀리게 되는데, 이 감각을 유지하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풀었고 새로운 문제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도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김웅 변리사님의 보충교재 뒤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었고 시험 막판에는 연도별로 된 문제를 풀면서 실전감각을 익혔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김웅변리사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늘 깔끔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고민을 없애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문은 따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방어적으로 어느정도는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문문제를 틀려 산재법에서 틀린 세문제 중 두 문제가 디자인보호법 문제였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72.5점>

【교재】

high-end 지구과학(박준희 저)

【공부방법】

자연과학은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감을 익혔고, 개념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예전에 남겨둔 필기자료 등을 보면서 보완했습니다. 필요한 파트는 인강을 활용하기도 했으나, 박준희 강사님의 핵심정리 강의를 들은 것 외에는 대부분 객관식 문제집을 활용하여 공부했습니다.

물리는 객관식 문제,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순서대로 풀이했고 기출문제에 비중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개념공부보다는 문제풀

이 위주로 공부하면서 맞춘문제는 지우는 방식으로 양을 줄여가며 반복해서 풀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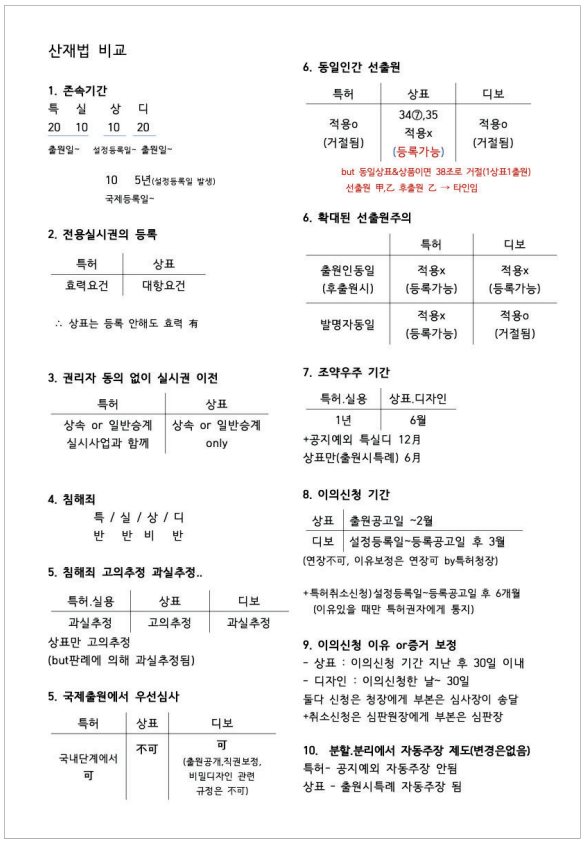
화학은 객관식 문제집에서 심화문제는 제외하고 1,2단계 문제까지만 풀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이도가 높고 출제가능성이 낮은 단원의 문제는 아예 풀지 않았는데, 함께 스터디하던 언니의 제안으로 기출문제를 통해 모든 단원의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올해와 같이 화학의 난이도가 낮게 나오는 해에 버리는 단원이 있었다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버리는 파트 없이 공부하는 것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생물의 경우 동차 1차때 기출문제를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공부했는데도 점수를 잘 받지 못한 기억이 있어서 객관식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양이 방대하고 공부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서 힘들기는 했으나 올해는 생물 난이도가 높아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은 삼시 수험생들 사이에 박준희 강사님 핵심정리만 들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따라갔는데 강의력이 좋으시고 핵심을 잘 짚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전에 해놓은 필기를 참고하면서 기출문제를 푸니 충분히 보완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만 반복했고 기본서 회독은 시험 막판에만 1-2회독 정도 가볍게 했습니다.

【오답노트】

1,2차 모두 오답노트를 작성했는데 특히 1차공부를 할 때 오답노트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오답을 표시하다 보면 어떤 부분을 헷갈리고 있는지 잘 보여서 집중적으로 해당 부분을 정리하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동차 1차때 작성해둔 오답노트를 삼시 1차 준비하면서 활용했는데 틀리는 지문이 비슷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허/상표/디자인 간에 헷갈리는 내용들과 민법에서 헷갈리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8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왔는데 실제로 틀리는 지문의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재법 비교

1. 존속기간

특	실	상	디
20	10	10	20

출원일~ 설정등록일~ 출원일~

10 5년(설정등록일 발생)
국제등록일~

2. 전용실시권의 등록

특허	상표
효력요건	대항요건

∴ 상표는 등록 안해도 효력 有

3. 권리자 동의 없이 실시권 이전

특허	상표
상속 or 일반승계 실시사업과 함께	상속 or 일반승계 only

4. 침해죄
특 / 실 / 상 / 디
반 반 비 반

5. 침해죄 고의추정 과실추정..

특허.실용	상표	디보
과실추정	고의추정	과실추정

상표만 고의추정
(but판례에 의해 과실추정됨)

5. 국제출원에서 우선심사

특허	상표	디보
국내단계에서 可	不可	可 (출원공개,직권보정, 비밀디자인 관련 규정은 不可)

6. 동일인간 선출원

특허	상표	디보
적용o (거절됨)	34⑦,35 적용x (등록가능)	적용o (거절됨)

but 동일상표&상품이면 38조로 거절(1상표1출원)
선출원 甲,乙 후출원 乙 → 타인임

6. 확대된 선출원주의

	특허	디보
출원인동일 (후출원시)	적용x (등록가능)	적용x (등록가능)
발명자동일	적용x (등록가능)	적용o (거절됨)

7. 조약우주 기간

특허.실용	상표.디자인
1년	6월

+공지예외 특실디 12月
상표만(출원시특례) 6月

8. 이의신청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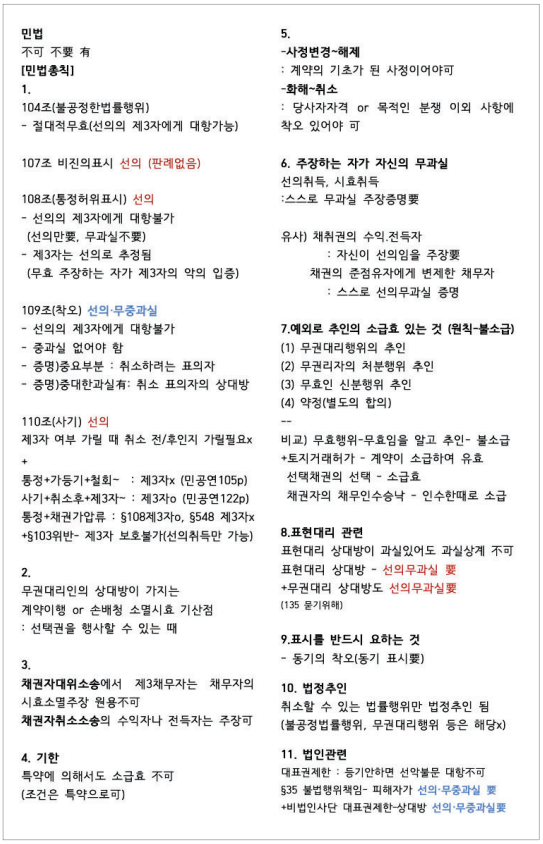
상표	출원공고일 ~2월
디보	설정등록일~등록공고일 후 3월

(연장不可, 이유보정은 연장可 by특허청장)

+특허취소신청)설정등록일~등록공고일 후 6개월
(이유있을 때만 특허권자에게 통지)

9. 이의신청 이유 or증거 보정
- 상표 : 이의신청 기간 지난 후 30일 이내
- 디자인 : 이의신청한 날~ 30일
둘다 신청은 청장에게 부본은 심사장이 송달
+취소신청은 심판원장에게 부본은 심판장

10. 분할.분리에서 자동주장 제도(변경은없음)
특허- 공지예외 자동주장 안됨
상표 - 출원시특례 자동주장 됨



민법
不可 不要 有
[민법총칙]
1.
104조(불공정한법률행위)
- 절대적무효(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가능)

107조 비진의표시 선의 (판례없음)

108조(통정허위표시) 선의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불가
(선의만要, 무과실不要)
-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됨
(무효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 입증)

109조(착오) 선의·무중과실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불가
- 중과실 없어야 함
- 증명)중요부분 : 취소하려는 표의자
- 증명)중대한과실有: 취소 표의자의 상대방

110조(사기) 선의
제3자 여부 가릴 때 취소 전/후인지 가릴필요x
+
통정+가등기+철회~ : 제3자x (민공연105p)
사기+취소후+제3자~ : 제3자o (민공연122p)
통정+채권가압류 : §108제3자o, §548 제3자x
+§103위반- 제3자 보호불가(선의취득만 가능)

2.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or 손배청 소멸시효 기산점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시효소멸주장 원용不可
채권자취소소송의 수익자나 전득자는 주장可

4. 기한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 不可
(조건은 특약으로可)

5.
-사정변경~해제
: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어야可
-화해~취소
: 당사자자격 or 목적인 분쟁 이외 사항에 착오 있어야 可

6.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무과실
선의취득, 시효취득
:스스로 무과실 주장증명要

유사) 채취권의 수익.전득자
: 자신이 선의임을 주장要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채무자
: 스스로 선의무과실 증명

7.예외로 추인의 소급효 있는 것 (원칙-불소급)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3) 무효인 신분행위 추인
(4) 약정(별도의 합의)
--
비교) 무효행위-무효임을 알고 추인- 불소급
+토지거래허가 -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
선택채권의 선택 -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승낙 - 인수한때로 소급

8.표현대리 관련
표현대리 상대방이 과실있어도 과실상계 不可
표현대리 상대방 - 선의무과실 要
+무권대리 상대방도 선의무과실要
(135 묻기위해)

9.표시를 반드시 요하는 것
- 동기의 착오(동기 표시要)

10.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만 법정추인 됨
(불공정법률행위, 무권대리행위 등은 해당x)

11. 법인관련
대표권제한 : 등기안하면 선악불문 대항不可
§35 불법행위책임- 피해자가 선의·무중과실 要
+비법인사단 대표권제한-상대방 선의·무중과실要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평균/컷
52.66점	57.33점	61점	60.33점	57/53

-민사소송법- <점수: 52.66점>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이창한 실전 A	이창한 기초(목차)	이창한 실전 B
실전gs(목차)	실전 gs	실전gs(홀수회차)

【시기별 공부】

동차 기간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통합민사소송법으로 공부했습니다. 동차생들의 경우 사례집을 주교재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기본서를 메인교재로 삼아 공부했고 시간이 없어 사례집을 1회독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이 잘 맞았고 암기도 꽤 되어있었지만 목차잡는 연습이 부족했던 것이 동차시절의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득 기간에는 민소공부 비율이 낮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동차시험 결과 민소는 38점, 특허는 56점을 받았습니다. 민소를 더 많이 해야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도 투자하는 시간대비 효율이 좋은 특허법 공부만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일주일 남았을 때, 동차 때보다 기본서 암기가 덜 되어있다며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삼시 기간에는는 기득 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특허법 공부량을 대폭 줄이고 민사소송법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3주 정도는 특허법을 암기스터디 하는 1-2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예 공부하지 않고, 남는 시간을 모두 민사소송법에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특허법 gs성적이 특별히 떨어지거나 하지 않았고, 민사소송법에 공부시간을 몰아준 덕분에 실력이 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한 결정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삼시 기간 중 가장 잘 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차-기득때의 민사소송법 공부방법은 부족한 점이 많아 아래는 삼시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 방법】

기본서의 경우 통암기를 위해서 스터디 범위(2주1회독 분량)만큼 봤고 따로 회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례집은 이창한강사님의 통합사례집을 풀었습니다. 1차공부하면서 잃어버린 감을 찾기 위해 3월 주말 저녁에 사례집 몰아서 푸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1차 공부를 하는동안 민사소송법을 많이 잊어버려서 모르는 것이 많긴 했지만 빠르게 감을 올리는데 효과가 좋았고, 혼자 했다면 기본서를 한참 뒤적거리며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 같은데 스터디원들과 함께하니 시간낭비가 적었습니다.

이어서 2회독을 하면서, 아이패드에 목차를 넣어두고 다시 풀지 않아도 될 문제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3회독을 하면서 다시 풀어야 될 문제를 표시했는데, 이때는 논점이탈, 답틀 등 꼭 다시 풀어야할 문제는 빨간색, 사소한 논점누락이나 gs에 나온것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7월에 시간이 부족하면 빨간색만 다시 풀 생각으로 나누어 표시했습니다. 사례집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 한 번의 회독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에 공부량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미리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는 강의를 들으면서 연도별로 풀었는데, 문제의 경향을 알 수 있었고 실제 시험에서 애매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삼시기간 통틀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17개년 연도별 문제를

3회독 했고, 사례집과 마찬가지로 2회독 때부터 다시 풀 문제를 소설문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핸드북을 풀었는데 손으로 쓰지 않고 눈으로만 주논점을 잡으며 빠르게 푸니 2주도 안되는 시간동안 핸드북을 다 풀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효율적이어서 이후에 사례집도 눈으로 풀기도 했습니다.

【암기 방법】

3월에 **전화암기스터디**에 들어갔는데, 민사소송법 암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를 추가해 두 개의 민사소송법 암기스터디를 했습니다. 61기로 합격한 언니가 알려준 방법이었는데, 범위를 다르게 하여 두 개의 스터디를 하게되면 봤던걸 반복해서 보게 되어 효과가 좋았습니다.

기본서를 암기할 때는 목차만 암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기본서 통암기**를 했습니다. 목차암기-페이지암기-판례단위 암기의 순서로 암기를 하면 민사소송법 구조화가 잘 되어서 판례들의 위치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득 때는 판례 두문자를 많이 이용했다면 삼시때는 목차 두문자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올해 1-1 문제에서도 두문자(처포변석)를 외워놓은 문제가 나와서 고민없이 바로 답안작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목차가 정형화 되어있어 암기해두면 편리한 목차들이 있는데, 잘 활용하면 편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차단위 암기를 했기 때문에 대목차를 제외하고 양괄호 목차와 반괄호 목차 준위를 각각 파란색, 보라색펜으로 칠해두면 목차암기 할 때 암기할 것이 한눈에 보여서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학판검에서 학설은 초록, 판례는 붉은색으로 칠해두면 학판검만 암기할 때 한눈에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형광펜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문구를 암기할 때는 판례의 키워드나 판례를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들을 위주로 암기했고, 판례가 너무 길어 현출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잘 안외워지는 판례들은 두문자를 직접 따서 암기했습니다.

암기는 기본서에서의 위치까지 외워지는 것을 선호했고, 단권화된 판례들과 필기까지 보면서 암기하기 위해서 무조건 실물책으로만 암기했습니다. 플래쉬카드나 이런것들을 시도해보기는 했으나 잘 안맞아서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헷갈리는 학판검들은 따로 기본서 앞에 붙여두고 판례가 나올 때마다(헷갈리지 않을 때도) 펼쳐봤습니다.

-특허법- <점수: 57.33점>

【수강한 GS】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박형준 실전A	기출 50점쓰기	실전gs	박형준 실전B

【공부방법】

특허법은 탄력적인 사고가 필요한 과목이지만, 결국 그 사고의 기반은 촘촘한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차 때 민소와 상표에 비해 특허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돌이켜보면 특허만큼은 기본서 통암기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득 때도 동차때 암기해놓은 것들이 휘발되지 않도록 비시즌부터 기본서 암기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삼시때도 마찬가지로 1차시험이 끝나고 암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암기를 반복하다보면 회독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전에 암기해둔 내용이 많이 유지되어 있어 암기에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시간을 사례집이나 GS 복습에 더 투자할 수 있었고, 사례집·gs 회독 속도가 함께 빨라지면서 암기와 문제풀이 사이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실력이 확실히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았고, gs문제를 풀 때도 창작문제를 제외하면 이미 본 적 있는 문제를 다시 푸는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기본서를 잘 암기해 두는 것이 사례집·gs 학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전체적으로 특허 공부 시간이 줄어 다른 과목 공부시간까지 여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독 방법】

기본서는 문제풀이처럼 공부의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진도가 밀리거나 대충 읽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했고, 스터디를 하지 않던 기간에는 사례집·gs 진도를 기본서와 연계해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기본서만 따로 읽지 않고, 문제풀이와 연결하여 지루하지 않게 회독할 수 있었습니다.

준특허는 각주가 많은 편인데, 각주에 참고,기출,탑텐과 같은 표시들이 잘 되어있어서 강약조절을 하면서 읽기 편리했습니다. 참고표시만 되어있는 각주는 아예 읽지 않았고, gs나 사례집에 나온것들은 따로 숙지표시해두고 회독할 때마다 읽었습니다. 그 외에 기출표시나 탑텐표시가 되어있는 것들은 회독할 때 함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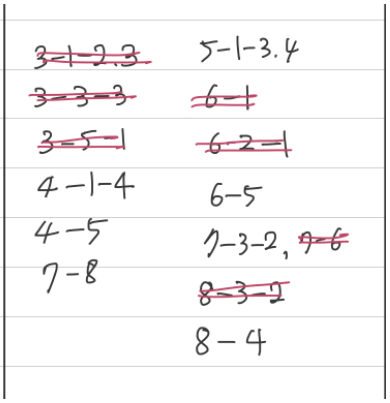
사례집은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재나 과목과의 사이에서 비중을 정하는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길게 푸느냐 한번에 많은 문제를 빠르게 푸느냐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었는데, 3주정도에 한번 회독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회독했을 때가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허보다 민소와 상표가 약한 편이어서, 특허 사례집은 한 번 회독을 돌리고 나면 2-3주는 다른 과목을 보충하는 식으로 텀을 조금 두고 회독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회독을 늘리면서 2회독부터는 양을 줄여나갔습니다. 삼시때는 특허법 공부 비중을 많이 줄여서 3회독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사례집 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타이핑하는 방식을 이용했는데, 목차만 잡지 않고 판례 내용도 간단히 적을 수 있는 정도로 시간이 확보되어 좋았습니다.

gs도 사례집과 마찬가지로 양을 줄여가면서 공부했습니다. gs풀고 쉬는시간과 강평시간을 이용해 책에 표시를 마쳤고, gs복습은 목차잡기를 하고 다시 풀 문제를 표시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 때에는 느슨한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걸리는게 있으면 다 표시했습니다. 다음 달에 2회독을 하면서 다시 모든 문제의 목차를 잡았고, 추가로 다시 풀 문제를 표시하거나 필요없다고 판단된 문제를 지웠습니다. 3회독을 할 때는 표시된 문제만 풀면서 다시 양을 줄였습니다. 3회독을 마치면 오른쪽 사진 정도(7문제)로 다시 풀 문제가 남았습니다. 해당 회차에서 더 이상 다시 풀 문제가 없어지면 해당회차는 따로 빼서 사물함 구석에 넣어두고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줄여놓으면 7월에 gs한세트를 복습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문4			
설1	1	무심의취	
	2	의용발	
	3	의용발 진보성 판단	
		구성요소-의약물질과 용도	
		진보성- 의약물질과 용도를 쉽게 예측, 증명되어야할필요없	
		사안-부정	
	4	설-인용ㅇ	
설2	1	일반적 진보성판단	
		판례	
		사안	
	2	선행문헌 파악방법	
		전체적 선전통합	
		다선제종	
		사안- 진보성 부정불가	
	3	설해- 기각	
설3	1	투여용법 의용발	
		전합다수	
		보충	
		사안-ㅇ	
	2	설해-ㅇ	

스프레드시트 활용



gs 양 줄이기

판례집은 기본서나 사례집보다 비중을 낮게 두고, 처음 보는 판례가 없게 만들자는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스터디원과 판례집을 읽었는지 확인하는 형태의 전화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4~5개 정도 판례를 읽어오면 전화로 서로에게 세 가지 정도 질문했습니다. 15분 내외로 짧게 진행했고, 판례를 제대로 읽었다면 누구나 바로 답할 수 있는 수준(ex. 코팅장치 사건에서 문제된 조문 등)으로 질문하여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기득 때는 텀을 길게 두고 2회독을 했는데, 1회독 때는 모든 판례를 읽었고 2회독 때는 준특허에 표시된 별 두 개 이상 판례만 읽었습니다. 삼시 때는 처음부터 별 2개 이상 판례만 읽었고, 1회독 후에는 최근 5개년 판례와 최신판례 자료를 추가로 2회독 했습니다.

【암기 방법】

동차 때부터 **기본서 통암기**를 했습니다. 동차 때는 총알만 보고도 좋은 점수를 받는 분들이 많지만 총알이 어느정도 익숙해진 후에 기본서로 암기를 하면 판례의 위치들이 외워져서 문제풀이할 때 떠올리기 좋았습니다. 동차,기득,삼시 모두 기본서 암기에 비중을 높게 두었고, 동차 때 암기를 열심히 해두어서 기득,삼시 때도 특허법 암기는 부담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암기스터디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암기스터디는 준특허에 적힌 판례제목을 랜덤으로 질문하면 해당 판례의 내용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1회독 때는 하루 약 30페이지를 암기했고, 이후 회독부터는 하루 50페이지 정도로 속도를 높여 2주 1회독을 했습니다. 매 회독을 마치면 정정 파트나 특유발명 파트처럼 **취약한 부분을 한 번 더 암기**하고 다음 회독으로 넘어갔습니다.

7월에는 회독 속도를 더 끌어올려 1주 1회독, 시험 일주일 전에는 시험 주 리허설을 하면서 2일 1회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에는 시험 주에 읽을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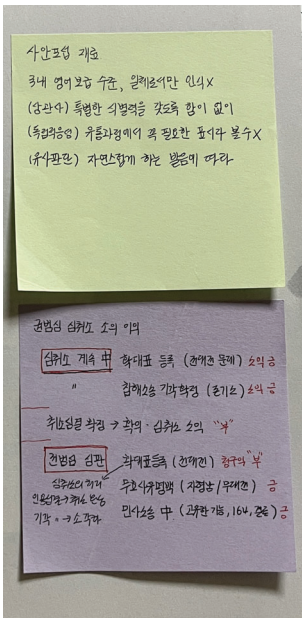
-상표법- <점수: 6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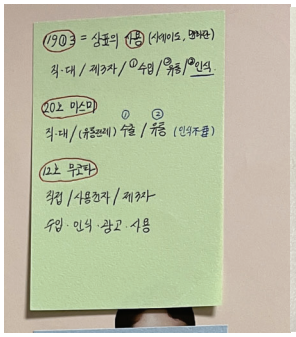
【수강한 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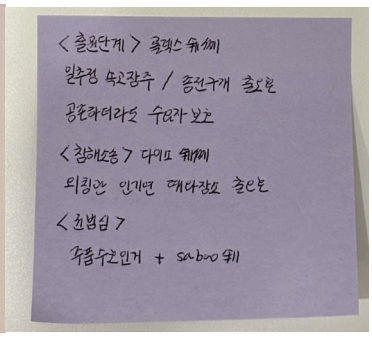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한경훈 실전 A	실전 gs	한경훈 실전 B	상표 실전(홀수회차)

【공부방법】

동차 때까지는 판례자료와 기본서 위주로 회독하면서 강약조절하지 않고 모든 판례를 고르게 보았습니다. 기득 5월쯤에 최신판례(5개년) 자료를 봤는데, 강약조절을 하지 않은 것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막판에는 5개년 최신판례 위주로만 회독했습니다. 삼시 때는 사례집을 풀 때 발췌독하는 것 외에는 6월 이전까지 기본서를 거의 보지 않았고, **최신판례 자료**만 반복해서 봤습니다. 기본서 발췌독을 하면서 암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따로 포스트잇에 두문자를 따서 적어두고 사례집을 풀다가 나오면 포스트잇의 판례를 알고 있는지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때 강사님들이 말씀해주시는 소중한 팁들도 따로 기억하지 않으면 잊기 쉬워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단권화 했는지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 아래에 사진을 첨부드립니다. 최신판례에 없는 중요 판례들을 최신판례자료에 단권화하여 7**월에 최신판례자료만 볼 수 있도록** 3월에서 6월까지 준비해나갔습니다.







【회독 방법】

기본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삼시 때는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6월에만 빠르게 2회독 정도했고, 권범심,권리남용처럼 판례가 많고 헷갈리는 파트 또는 사례집으로는 연습을 충분히 하기 어려운 파트만 집중적으로 암기했습니다.

사례집은 민소,상표와 마찬가지로 양을 줄여가면서 반복했습니다. 사례집 목차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2회독 부터는 다시 풀문제를 표시했고, 삼시기간 동안 총 3회독 했습니다. 스터디원들과 하루에 30문제씩 풀어서 빠르게 끝내려고 계획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5-6일 정도를 투자하여 1회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판례집은 해당 판례에 몇가지 논점이 녹아 있고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봤습니다. 제주일보 판례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판례는 문제를 읽을 때 시간낭비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도식화하여 외워버렸고, 간단한 판례들은 암기스터디에서 암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보고 넘어갔습니다. 판례요약자료로 판례마다 어떤 논점이 있는지 암기하는 암기스터디를 3월동안 했고, 판례집(판례원문)은 1.5회독 정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최신판례자료를 주 교재로 삼아서 반복해서 회독했습니다. 최신판례자료에 없지만 gs에 출제된 판례나 기타 중요한 판례들은 최신판례자료에 단권화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원과 함께 단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파트의 목차를 잡아 추가로 단권화했습니다. 시험 전주에 최신판례자료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gs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실전 A,B를 들었고 특허와 같은 방식으로 양을 줄였습니다.

【암기 방법】

판례요약자료를 활용해서 논점 암기를 했고, 이후 판례 내용 암기도 했습니다. 5월부터는 최신판례자료를 활용하여 암기스터디를 했습니다. 최신판례(6개년)는 개수가 많지 않아서 하루에 15개만 암기해도 회독횟수가 빠르게 늘었고 밀도있게 최신판례를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gs가 없는 달에는 사례집으로 50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하고 피드백하는 스터디에 들어갔습니다. 스터디원들의 답안을 꼼꼼하게 읽으며 피드백하다보니 답안 스타일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고, 모두가 다 잘쓰는 논점과 모두가 잘 쓰지 못하는 논점, 실제 시험이었다면 이런부분에서 점수가 갈렸겠다 하는 것들이 보여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틀린 부분이나 잘못이해하고 있던 부분이 선명하게 보여서 충격요법으로. 확실하게 암기가 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점수: 60.33점>

【수강한 GS】

25년 6월
김웅 실전gs

【공부방법】

선택과목은 공부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투자를 할 수 없지만 부족하게 공부를 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적당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차, 기득 때도 늘 불안한 마음으로 디자인보호법 시험을 치뤘지만 패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삼시때는 하루에 한시간 정도만 디자인보호법에 투자했습니다.

5월부터 디자인보호법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고 6월에 암기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에서는 판례자료를 회독하면서 결론을 암기했고, 이후에는 기본서 암기와 김웅변리사님 gs 암기도 진행했습니다. 스터디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디자인보호법에는 하루 한시간을 투자했고 암기할게 많은 날이라도 두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김웅 변리사님 gs는 답안형식이 아니어서 쓰기 연습하는데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여기 있는 것만 다 알아도 패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공부의 범위를 정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삼시때는 마지막 회차를 제외하고는 목차만 잡았습

니다. 다만 동차와 기득때는 gs를 실강으로 쓰러 갔습니다.

기득 때는 아예 틀린 문제도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여유있게 패스를 받았습니다. 삼시 때도 엉망으로 풀었다고 생각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패스를 받은 것을 보면, 완벽한 정답을 쓰는 것보다 배점을 채우고 성의있게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배점을 다 채우고 성의있는 답변을 채우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1페이지	약 21자	1.목차 사이에 엔터 X 소설문 끝날 때 엔터 O	세로 폭의 2/3 정도
특허법	22페이지			
상표법	22페이지			
디자인	21페이지			

【글씨 노하우】

글씨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서 노하우를 이야기하기는 민망하지만, 글씨가 바르지 않더라도 일정한 글씨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답안인상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용한 펜】

제트스트림 펜대에 에너갤 0.7 리필심을 사용했습니다. 잘 미끄러지는 펜을 선호하는 편이고 두께가 적당히 있어야 답안이 잘 채워지는 느낌이 나서 에너갤 0.7을 사용했습니다.

【답안작성 방법】

삼시 때는 **읽기편한 답안지**를 쓰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판례에도 **라벨링**을 하여 내용을 굳이 읽지않아도 어떤 판례인지 파악이 가능하게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차,기득 때는 판례의 라벨이 명확히 있는 것 외에는 그냥 判例라고 썼다면, 삼시때는 '식별력 있는 부분의 취급 判例' 과 같이 매 판례마다 라벨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논점마다 결론을 병기했습니다.(ex.식별력손상여부-적극, 설문해결-기각판결)

조문 병기의 경우에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꼼꼼하게 다 병기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병기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터디원들과 답안을 돌려보는 스터디를 할 때 조문병기를 해둔 답안이 논점파악 여부가 한 눈에 판단되고 채점하기 편안하다는 것을 느껴서 가능한 병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문병기를 한 답안의 전체 인상이 훨씬 좋았습니다.

논점정리와 관련하여 특허와 상표는 배점이 클 때만 작성하였고, 민사소송법은 모든 문제에 논점정리를 작성했습니다. 가능하면 논점정리에는 논점들과 더불어 문제의 결론까지 함께 적어서 답안을 읽기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점에 비해 쓸 내용이 적거나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말을 늘리고 중언부언해서라도 배점은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띄어쓰기를 크게 했는데 이것도 배점을 채우기 위한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시 때는 **사안포섭**을 꼼꼼히 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상표>>특허>민소 순으로 두껍게 사안포섭을 했는데, 상표 뿐만 아니라 특허나 민소도 사안포섭을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고, 상표의 경우에는 배점이 큰 경우 두페이지 가까이 사안포섭만 하기도 했습니다. 사안포섭을 꼼꼼히 하는 것은 좋지만 시간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사안포섭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연습을 사전에 해두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안포섭은 반괄호와 원문자를 활용하여 정돈된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과목별 전략】

모든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7월을 위해 양을 줄여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목을 불문하고 7월에 내가 얼마만큼의 분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그에 맞게 문제풀이 뿐만 아니라 암기의 양을 줄여놓는 것이 이 시험을 잘 소화해내기 위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판례를 변형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정형화된 목차로 답안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서와 사례집을 반복하여 목차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독을 늘려나가면서 목차에 익숙해졌을 때 목차구성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었고, 목차를 변형하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사소송법 만큼이나 암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과 달리 목차단위의 암기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판례 문구 자체를 잘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에서 트리거를 발견하기가 수월하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기본서의 관련파트를 떠올리며 논점을 스크리닝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상표법은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에 큰 이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표의 경우에는 논점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논점스크리닝을 위한 두문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실수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시간 관리】

저는 세 번의 시험에서 항상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는데,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춰두고 시험을 시작하면 그래도 압박감을 느껴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부족은 시험장에 가서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니 꼭 미리 gs때 해결하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멘탈 관리】

저는 수험 기간 동안 특별한 슬럼프를 겪지 않았습니다. 공부 자체는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즐거움을 찾으려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마치고 친구와 간단하게 저녁을 먹거나, 전화 스터디 후 잠깐 잡담을 나누는 시간이 작은 휴식이었습니다. 하루가 늘 빠듯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그 짧은 여유가 공부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험생활을 내 인생의 특별한 시기로 두기보다, 평소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받아들였던 것이 슬럼프 없이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매일의 공부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으며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슬럼프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부 장소】

집앞 스터디카페에서만 공부를 했고, 아주 가끔 암기가 잘 안되면 집 근처 공원에 가서 암기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스터디】

과목별로 전화암기스터디를 했고, 스터디원들과 필요할 때마다 유동적으로 사례집 목차잡기 스터디, 기출문제 목차잡기 스터디, 판례집 스터디 등을 했습니다. gs를 듣는 주말에는 저녁시간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무조건 학원 앞 카페에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주로 사례집 몰아풀기나 gs 또는 기출문제 하프답안 쓰기 스터디를 했습니다.

【휴식】

휴식과 관련해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쉬는 날 없이 공부를 하는 편이었는데, 규칙적으로 쉬지 않으면 슬럼프가 오기 쉽다는 말을 듣고 다른 수험생들처럼 gs를 마치고 월요일에 휴식을 가져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쉬려고 하니 오히려 공부리듬이 깨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시간내어 쉬는 것 보다 약간의 늦잠을 자는 정도의 휴식이 저에게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월요일에 쉬지 않는 대신 가끔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는 등으로 휴식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맞는 지속 가능한 루틴을 찾아가는 과정이 슬럼프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윌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이창한 강사님의 실전gs 문제는 풀지 않는 수험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논점들이 담겨있어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니 여러모로 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차 때 실전A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는데 시험직전에 실전 B만 열심히 외우고 들어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형준 변리사님의 기초gs+ 강의는 동차 때 들어 삼시때까지 활용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아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차기간에는 답안지를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하고 전통적인 A급 논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쁠에 있는 판례부터 외우면 된다는 방향성이 생겨 공부가 수월해졌던 것 같습니다. 기득과 삼시기간에는 쉬거나 1차공부를 하면서 잃어버린 감을 찾기 위해서 항상 기초gs+ 목차잡기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험기간 통틀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강의입니다.

한경훈 변리사님의 실전gs 문제는 난이도가 있어서 실전감각을 키우기에 좋았습니다. 문제를 풀다보면 제가 놓피고 있던 부분이 드러나서 항상 겸손하게 기본기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 과목은 강사님들마다 문제와 답안의 개성이 강한 것 같은데, 한경훈 변리사님의 문제 스타일과 답안 구성이 항상 저에게는 가장 설득력있게 느껴졌습니다.

김웅 변리사님의 실전gs는 이것만 들어도 불안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적당한 분량이라는 점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선택과목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하는지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분량과 난이도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 믿고 따라가기 좋았습니다. 과목 특성상 효율이 중요한데 김웅변리사님gs는 그 균형이 잘 맞추어져있었습니다.

마치며

합격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합격의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험기간을 돌이켜보면 지나간 시간은 참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합격이 가까이 있으니, 이 수기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수험생활 속에서 나름의 즐거움을 찾으며 힘 내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yejin7836@naver.com으로 메일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기간 동안 수험생을 늘 배려해주고 응원해준 가족들과 친구들, 함께 고생한 스터디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밤낮없이 질문을 받아주시고 상담해주신 박형준 변리사님, 한경훈 변리사님, 양진하 변리사님, 박규민 변리사님, 천훈기 변리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